

※ 『이고리 원정기』(Слово о полку Игореве; 1187년 이전?) -
 중세 동슬라브 기사도 문학의 ‘사회적 서정시’

1. 배경 - 12세기 중후반 이후 키예프 루시 남쪽 국경을 침범하던 초원의 유목민들과의 잦은 충돌을 이후, 루시에 닥쳐올 외적의 힘에 대비, 내부의 단결을 촉구하던 익명의 저자의 사회적 메시지로 읽혀짐.
2. 주제 - 외적의 침입에 대비한 루시 전체의 단합과 단결을 호소
3. 성격 - 중세 서유럽의 전형적인 기사도 문학(『베오울프』, 『롤랑의 노래』, 『니벨룽겐』, 『엘시드의 노래』 등)과는 적잖은 차이. 의미론과 구성, 형식, 제재에서 분명한 차이점을 보임.
4. 변별점 - 긍정적 영웅과 기사를 노래하는 것이 아니며, 그 긍정적 주인공을 치밀하게 추적하는 것도 아니라 여러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며 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또한 슬픔과 죽음을 노래하는 민간 전통의 만가(輓歌)까지 섞여 드는 등, 형성되어가던 중세의 필사 전통에서는 꽤 이탈한 작품이다.
5. 장르 - 야욕에 눈이 멀어 적의 손에 포로가 되었으나 결국 풀려나 고향으로 온전하게 돌아오는 이고리 공을 찬양하는 긍정적 파토스로 종결되나, 이고리 공의 원정 자체를 ‘이야기한다’(слово)기 보다는, 그의 원정이 어떤 의미인가를 감히 ‘해석’하려 시도한다는 의미에서, 중세 익명성의 뒤로 숨긴 하지만, 강력한 작가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분출하는, ‘사회적 서정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6. 구성
 - 1) 시작 - 보얀(Боян)의 이야기가 아닌 “실제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자.
 - 2) 이고리의 원정준비 “루시 인들이여, 나는 당신들과 함께 플로베츠의 평원에서 창을 부러 뜨리고 투구로 돈 강의 물을 마시고 싶다”.
 - 3) 불길한 징조 - 일식.
 - 4) 첫날의 전투와 러시아의 승리.
 - 5) 둘째날 전투와 플로베츠의 승리, “오, 러시아 땅이여, 너는 이미 언덕 너머로 모습을 감추었구나”.
 - 6) 공후들의 불화에 대한 (작가의) 비난.
 - 7) 러시아의 패배, “핏빛의 포도주가 바닥났고, 용감한 루시인들은 축연을 끝마쳤다”.
 - 8) 저자의 한탄.
 - 9) 키예프 대공 스바토슬라프의 꿈.
 - 10) 러시아 공후들에게 (이고리를 도와달라는 호소인) 시인의 노래.
 - 11) 이고리의 아내 야로슬라브나의 애가.
 - 12) 이고리의 탈출.
 - 13) 이고리와 도네츠크강의 대화.
 - 14) 플로베츠의 추격.
 - 15) 결말. “하늘에서는 태양이 빛나고 러시아 땅에는 이고리 공이 빛난다.”